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시스템 분석과 리모델링 스토리두잉의 학술적 입안점 제안

권도경*

[초 록]

본 연구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웅진·사비백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동명왕 제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성백제에만 한정되는 온조왕 제의로부터 축제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의 연쇄적인 체험존들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두잉 또한 현행의 백제왕비선발대회, 백제왕 행군식, 백제마을체험, 백제먹거리체험 등 공주와 부여의 <부여공주백제문화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한성·웅진·사비백제 보편의 백제문화를 재매개화 한 것에서 탈피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서울의 특수한 지리적 경계를 배경으로 한 한성백제의 신화적 공간성을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의 새로운 스토리두잉 결과물은

*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주제어: <한성백제문화제>, 한성백제, <백제신화>, 스토리두잉, 재매개화, 축제
<Hangsungbaekjei Cultural Festival>, Hansungbaekjei, <Baekjei Myth>, Storydoing, Reparametrization, Festival.

현행의 <부여공주백제문화제>의 그것과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에 나타난 <한성백제신화>의 공간적 구현양상과 스토리두잉 시스템을 <한성백제건국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존과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존으로 크게 양분하여 분석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객 개발 및 확충을 위해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문화제> 재매개화 리모델링 스토리두잉 입안점을 제시했다. <한성백제신화> 고전서사원형의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연계성 문제, 고전서사원형이 되는 <한성백제신화>를 <한성백제문화제>화 하는 스토리두잉 구조상의 완결성 문제, <한성백제생활문화담> 재매개화 스토리두잉의 정체성 문제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여 <한성백제문화제> 리모델링 스토리두잉을 위한 입안점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한성백제건국신화>의 관객 확충을 위해 기존 스토리두잉 시스템을 리모델링 할 기획 디자인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한성백제건국신화>의 특수한 신화적 콘텍스트와 상상력을 한성백제의 지리적 경계인 서울 도시 공간을 중심 센터로 하여 스토리두잉을 리모델링 하는 디자인이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후속 연구 진행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1. 들어가는 말

범박하게 말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의 이미지와 신화적 상상력을 매치시키는 인식은 우리의 보편적인 관념체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건국시조의 창업 과정을 신성화 하여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국신화의 신화적 상상력을 서울이라는 공간과 연결 지으려면 당혹감을 느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서울이 조선의 수

도였다는 점에서 조선 건국신화와 서울의 공간성을 대응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서울의 수도화는 조선의 건국이 신화가 더 이상 하나의 지배적인 관념체계로 통용되지 못하게 된 중세 후기에 수행된 과업이다. 이른바 탈신화(脫神話) 시대의 산물인 수도 서울의 공간 이미지는 신화적 상상력과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평양이라는 지역의 공간성이 <고구려 건국신화>의 신화성과 일치하는 것처럼 인식¹⁾되거나 경주, 김해 등에 대한 공간관념이 각각 신라신화·가야신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대응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자. 서울의 공간 이미지를 중세 이전의 신화시대로 소급시켜 보면 문제의 입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서울이란 공간은 비록 한반도 전체의 중심은 아니지만, 고대 특정 시기에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한 지역국가의 수도로 존재한 경험이 있다. 바로 초기 백제 시기에 해당하는 한성백제(漢城百濟, BC 18-475)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성백제의 수도로서의 서울은 오늘날의 송파에서 하남에 이르는 지역에 비정되는 위례(慰禮)이다. 따라서 <한성백제신화>²⁾

1) 물론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나 광개토태왕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평양은 고구려의 건국지가 아니다. 주몽에 의한 고구려 건국은 흘본성(忽本城) 혹은 졸본성(卒本城)에 비정되는 오늘날의 중국 요령성(遼寧省) 본계시(本溪市) 환인현(桓因縣)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려조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記) 권하(卷下) <고구려기>(高句麗紀)나 조선조 『세종실록지리지』(宗實錄地理志), 『고려사』(高麗史) 지리지 평양조를 보면 고구려 시조 동명왕묘가 현재의 평양시에 비정되는 서경유수부(西京留守府) 중화군(中和郡) 용산묘(龍山墓) 혹은 진주묘(眞珠墓)라는 기록이 있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흘본성에 있던 동명왕묘를 이장했거나 혹은 가묘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건국신화>의 공간지리를 평양의 그것을 중심으로 재축조하고자 했던 인식이 고구려 장수왕조부터 조선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한성백제신화>가 <한성백제건국신화>와 <한성백제왕권신화>로 구성된다고 할 때, 신화란 반드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고에는 <한성

는 곧 서울을 신화적 공간으로 하는 건국신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의 공간적 신화성을 논할 수 있는 입점이 확보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서울이란 공간이 환기하는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인 <한성백제신화>는 과거의 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축제 문화콘텐츠로 재창조되어 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송파구에서 총17회가 거행된 <한성백제문화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결국 서울의 지리적 바운

백제신화>를 한성백제 건국 및 왕권구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합리화하기 위한 이야기로서 해당의 이야기를 통해 건국 및 계승 왕권 자체의 위대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로 규정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고구려신화>나 <신라신화>와 달리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시조온조왕>(始祖溫祚王)조에 전하고 있는 <백제신화>는 “신이성”의 비층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백제신화>가 본래부터 신성성이 부재한 이야기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래 존재했던 신성성이 특정한 의도에 의해 신화적 분석이 가해진 결과 신성성이 탈각된 결과물이 오늘날 『삼국사기』에 전하는 <백제신화>의 현전 태라고 할 수 있다. 신화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백제신화>가 갖고 있던 신성성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신이화소들이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삼국사기』의 <백제본기>(百濟本紀)에 전하는 온조왕 13년의 왕력기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여기서는 온조왕의 시조모(始祖母)인 소서노(召西奴)의 죽음에 대해 “**왕도(王都)의 노파(老嫗)가 남자로 변하고(化爲男), 다섯 마리 범(五虎)가 성에 들어옴(入城)**에 따라 61세의 왕모(王母)가 사망했다.(王都老嫗化爲男, 五虎入城, 王母薨, 年六十一歲)”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본래 <백제신화>가 지니고 있었던 신성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물론, 상기 신이화소는 천도와 관련된 정치적 이면을 전조하는 『삼국사기』의 관용적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삼국사기』의 신이적 관용표현이 <백제신화>를 제외한 <고구려신화>, <신라신화>에서는 신성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신성성이 대거 탈각되어 있는 『삼국사기』의 <백제신화>의 경우에는 본래 존재했던 신성성이 분석되고 남은 흔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 온조왕 13년조의 신이기가 온조왕의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재편된 <소서노신화>의 남은 흔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들을 참조할 수 있다. 권도경(2010), 「고구려 신화의 성립과 소서노 배제의 정치사회학」, 『선도문화』 9, 국학연구원, pp. 443- 484; 권도경(2008), 「소서노신화의 위계변동 체계 및 전설화 양상과 그 의미」, 『퇴계학과 한국문화』 42, 퇴계연구소.

더리 내부에서 성립된 한성백제라는 고대 국가의 건국신화를 현대적인 지역관광문화콘텐츠로 탈바꿈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지역관광문화콘텐츠의 유형은 크게 상설형(常設型)인 테마파크형과 비상설형(非 常設型)인 축제형(祝祭型), 콘텐츠형³⁾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서울이라는 도시 내부에 축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비상설적인 공간을 축조함으로써 <한성백제신화>를 현재화 하는 축제형의 서울 지역관광문화콘텐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제의(國家祭儀)나 아니면 현대적인 지역관광콘텐츠냐의 답은 그릇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속에 담긴 이른바 <한성백제신화>라는 내용의 총체적인 맥락은 동일하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서울을 신화적 공간으로 하는 <한성백제신화>를 현대적으로 재매개화 한, 일종의 현재화 된 제의콘텐츠로서의 지역관광문화 축제콘텐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성백제문화제>가 지니는 서울 지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콘텐츠의 내용은 여타 지역의 축제형 관광문화콘텐츠들에 비해 특별한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성백제신화>라는 서울의 지역사적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퍼레이드, 제의, 마을체험, 먹거리장터, 왕비뽑기대회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의 내용이 여타 지역의 축제형 관광문화콘텐츠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퍼레이드, 제의, 마을체험, 먹거리장터, 왕비뽑기대회 등의 개별 콘텐츠 섹션들이 <한성백제신화>의 구체적인 서사적 특수성과 결합되어 있기는 하다. 예컨대, 퍼레이드는 역

3) 본 고에서는 콘텐츠형 지역관광문화콘텐츠를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콘텐츠와 관련된 스토리를 코어로 하여 축제 혹은 테마파크 등과 관련된 스토리를 서브로 결합시킨 유형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라는 콘텐츠를 코어 스토리로 하되 벅스코라는 건축물과 해운대라는 자연물, 남포동·서면 전통시장이라는 인문물 등과 관련된 서브 스토리들을 연계시킨 일종의 영화축제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상설형인 테마파크형에도 비상설형인 축제형과 콘텐츠형의 서브 서사를 결합시킬 수 있으며, 비상설형인 축제형에도 상설형인 테마파크형과 비상설형인 콘텐츠형의 서브 서사를 연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대 백제왕들의 즉위식이고, 제의는 백제가 분파해 나온 모국가(母國家)인 부여의 건국시조 동명왕(東明王)에게 올리는 동명제(東明祭)이다. 마을체험은 백제 전통 마을문화 체험이고, 왕비뽑기대회는 참가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백제 왕비 타이틀 획득 콘테스트로 되어 있으며, 먹거리장터는 한성백제 음식의 재현 장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의 개별 체험종들의 연쇄물이 <한성백제신화>의 서사적 완결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한성백제신화>는 건국시조 온조왕의 건국일대기를 그린 <한성백제건국신화>와 역대 왕들의 왕권계승기를 서사화 한 <한성백제왕권신화>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동명제는 건국시조 온조왕의 건국일대기와 관련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온조왕의 한성백제 건국일대기를 서사적으로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은 현행 <한성백제문화제>가 아직까지도 자기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인 서울에서 거행되는 대규모 도시 축제로서 대외적으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 6연속 수상과 국내적으로 제6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의 대상 수상 이력에 빛나는 지역관광문화콘텐츠이지만, 서사원형이 되는 <한성백제신화>를 축제 참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로 재매개화(reparametrization)⁴⁾ 해내는 스토리두잉(storydo-

4) “재매개화”(reparametrization)의 주체는 서사·연행으로 매체는 재매개화의 객체가 되며 서사·연행의 원형이 매체를 매개로 현대문화콘텐츠로 재매개화 되기 때문에, 뉴미디어(new media) 속에 올드(old media)가 중복매개 되어 있다는 들어 있다는 볼터(bolter)와 그루신(grushin)의 매체 간 “재매개”(remediation)[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옮김(2006),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즉, 매체 사이의 중복매개를 논의하려면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개념을 인용하여야 하지만, 서사 혹은 민속의 중복매개를 논하려면 재매개화 개념을 인용하여야 한다. 김선현은 「<심청전>의 재구와 고전 콘텐츠 — <심청전을 짓다: 심청이 제삿날 밤에>를 대상으로」(2018, 『공연문화연구』 36)에서 “서사의 재매개”를 탐구한다고 한 바 있으나, 이는 볼터와 그루신의

ing)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의 축제 참가자들이 스토리유저(storyuser)가 되어 스토리체험(storyexperience)을 할 수 있는 스토리두잉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한성백제왕권신화>로 연계되는 <한성백제건국신화>의 서사주체가 온조왕(溫祚王)으로 고정되어야만 한다. <한성백제문화제>의 참가자들이 스토리유저로서 각자 자신들을 서사원형인 <한성백제신화>의 시원인 건국시조 온조왕에게 등치 시킴으로써 각각의 체험존(experience zone)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체험들의 연쇄를 <한성백제신화>의 서사단계별 프로세스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는 1994년의 제1회를 백제 제13대왕인 근초고왕(近肖古王)의 한성(漢城) 진군행렬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자기정체성

“재매개”론과 기존 한국문학연구사의 “재매개화”론을 선행연구사 정리 없이 개념 오류에 의해 표절한 것이다. “재매개화”는 권도경의 「병란(丙亂) 트라우마 대응 고소설의 집단서사와 현대적 재매개화 이본으로서의 <최종병기 활>」(『고전문학 과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현재까지 관련 논문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 5) 고전서사 혹은 전통민속을 고전서사원형 및 고전민속원형으로 하되 변화된 시대 의식에 따라 현대적 매체에 의해 재매개화 스토리텔링 혹은 스토리두잉 하는 매카니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들을 참조할 수 있다. 아래의 선행논고들에서 확인되는 스토리두잉에 대한 학술적 개념 및 이론적 논의에는 차이가 없이 일관된 맥락으로 적용되어 있다. 권도경(2019), 「서울 <한성백제신화>의 VR·AR·MR 테마파크 스토리두잉(Storydoing) 방법론과 기획 디자인 전략」,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제1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원; 권도경(2017), 「민속연행원형(演行原型)의 개념규정과 관광문화재매개화콘텐츠로의 스토리두잉 매카니즘」, 『비교민속학』 64, 비교민속학회; 권도경(2016), 「현대재매개화콘텐츠의 고전문학사적 위치 규정을 통한 고전문학의 통시적 전변론」, 『인문논총』 제73권 제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권도경(2016), 「한국문학사 시대구분 기준으로서의 매체와 매체전환에 따른 재매개화 문학사론 설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교문학』 69, 한국비교문학회; 권도경(2015), 「민속의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두잉 모형론 제시와 실천문학의 고전연행원형으로서 민속이 지니는 차별적 가치 규정」, 비교민속학회 2015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논문집, 국립민속박물관, 2015. 11.20.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백제 최고 국력과 영토를 자랑하는 근초고왕은 고구려로부터 남평양(南平壤)을 빼앗은 뒤 한성으로 이름을 개칭하여 수도로 정한 인물이다. 고구려 건국시조 주몽왕의 아들로 고구려 출자(出子) 기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비류(沸流)와 달리 온조왕은 범부여계(汎扶餘系) 국가들의 공동 건국시조인 동명왕 출자 기원을 건국 직후에 거행한 동명제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제1회에 근초고왕의 한성 진군 퍼레이드를 축제의 시작부터 전면에 내세운 것은 오늘날의 인천에 비정되는 미추홀백제의 건국시조 비류와 한성백제의 건국시조 온조 가운데 어느 쪽을 수도 서울이라는 공간적 정체성 설립자로 확정지어야 할 지 모르는 서울의 자기정체성 규정의식 부재가 야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류 시조설과 온조 시조설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서울의 지역사적으로 수도 서울의 공간성(spaciality) 설립자로 확고하게 비정할 수 있는 근초고왕을 수도 서울의 스페셜러티 구축을 이룬 일종의 중시조(中始祖) 격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⁶⁾

<한성백제문화제>가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온조 시조설과 비류 시조설을 모두 배제하고 양자의 공유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동명제를 축제의 시작으로 고착화 시키기 시작한 2008년의 제9

6) 물론, 일견 <한성백제문화제>의 구성에서 온조 시조설과 비류 시조설이 중요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수 지역의 과거 백제권역에서 현행되고 있는 백제문화축제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결과다. 비류 시조설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해당 백제문화축제는 비류가 건국했던 미추홀백제의 수도 인천의 지리적 공간을 정체성으로 한 일명 <미추홀백제문화제>로 이동되게 된다. 실제로 인천 지역에서는 비류가 건국했던 미추홀백제 건국지인 문학산성(文鶴山城)에서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라는 <미추홀백제신화> 재매개화 축제가 현행되고 있다. 인천 남구청이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로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생생문화사업에 선정된 것은 2013년부터로, 2018년에 5년 연속 선정되었다. 2019년 올해로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는 제6회를 맞았다.

회부터이다. 비류의 출자 기원인 고주몽의 출자 기원마저도 범부여계 공유 시조인 동명왕으로 소급되니만큼, 객관적 사료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한 온조 시조설과 비류 시조설의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한성백제 시조의 최고 원류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축제의 서막을 열겠다는 축제 제작진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백제왕 퍼레이드와 왕비 선발대회는 이처럼 제9회부터 시조제의로 고정된 <한성백제건국신화>에 연계되어 있는 <한성백제왕권신화>를 개별적인 체험 스테이지화 한 것이고, 백제마을 체험과 백제먹거리 장터 등은 <한성백제건국신화>와 <한성백제왕권신화>의 양자에 걸쳐 있는 배경적인 백제문화 토대를 개별적인 체험존화 한 것에 해당한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여전히 사학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온조 시조설과 비류 시조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백제 왕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명왕의 공유 시조신화를 스토리두잉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백제신화의 보편적인 콘텍스트를 축제와 연계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한성백제문화제>가 놓친 것은 도시 서울의 공간 속에 잠류되어 있는 한성백제의 특수성이다. 동명왕은 제22대 문주왕(文周王, ?-477)이 출범시킨 웅진백제(熊津百濟, 475-538)와 제26대 성왕(聖王, ?-554)이 성립시킨 사비백제(泗沘百濟, 538-660)를 백제라는 국명 아래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통시조라는 점에서, <동명왕 신화>를 축제 스토리두잉의 서막으로 고착시키게 된 제9회부터의 <한성백제문화제>는 오히려 도시 서울에 공간적으로 내재화 되어 있는 한성백제의 신화적 콘텍스트가 지나는 도시 서울의 공간적 특수성으로부터 멀어져 각각 오늘날의 공주와 부여가 지나는 백제 보편의 공간적 일반성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한성백제는 시조 온조왕 6년부터 제21대 개로왕(蓋鹵王, ?-475)대까지, 백제사 700년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500여 년간 지속된 한성시대의 백제를 일컫는 명칭이다. 오늘날의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를 중심

으로 경기도 하남시과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를 각각 동북부 경계와 남서부 경계로 한 지역권이 지리적 경계가 되는 곳으로, 하남위례성(下南慰禮城)이 왕성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오늘날의 풍납토성이다. 근초고왕대를 최전성기로 하는 한성 시대의 백제는 국외 세력권이 중국의 요하, 동진과 일본에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장수왕의 남평양 수복을 위해 이루어진 한성 공약으로 개로왕이 전사한 뒤 문주왕에 의해 이루어진 공주 천도 시대의 백제는 비록 한강을 금강으로 대체한 중·일 해상교역을 지속하였지만 현행 도시 서울을 중심 강역권으로 하고 있었던 한성 시대의 백제가 구축했던 동북아시아의 해상왕국으로의 지배력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오늘날의 부여 천도 이후 사비 시대의 백제 국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애초에 오늘날의 도시 서울에 공간적으로 구축된 한성 백제의 정체성과 오늘날의 공주, 부여에 공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웅진·사비백제의 정체성은 종족시조 동명제의 보편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문화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분화시켜나간 차별성을 통합한 위에서 고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웅진백제와 사비백제의 당시 수도에 비정되는 오늘날의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또 다른 백제문화제란 이름의 축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올해로 64회를 맞는 <백제문화제>가 바로 그것이다. 도시 서울의 지리적 강역에 한정되는 <한성백제문화제>와 대비하여 오늘날의 공주시와 부여군의 지리적 경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부여공주백제문화제>(扶餘公州百濟文化祭)⁷⁾로 수정 명명해볼 수 있다. 이 <부여공주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의 선양·창달이라는 목적을 <한성백제문화제>와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세부 정체성이 차

7) 본 고는 <공주부여백제문화제>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주부여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식민지시기 고적보존회 활동은 <공주부여백제문화>를 주된 텍스트로 한 논고에서 통시적인 역사적 맥락의 하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별화 된다. <부여공주백제문화제>는 본래 백제 말의 3충신인 성충(成忠), 흥수(興首), 계백(階伯)과 백마강 3천궁녀들의 원혼을 위로함으로써 백제의 망국혼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1955년부터 부여군에서 거행되었던 <백제대제>(百濟大祭)에 기원을 둔다. <백제대제>가 공주백제 전성기 4대왕인 문주왕(文周王), 삼근왕(三斤王), 동성왕(東城王), 무령왕(武寧王)을 추모하기 위해 동일년도인 1955년부터 시작되었던 <웅진백제사대왕추모제>(熊津百濟四代王追慕祭)를 흡수합병하면서 공주와 부여 격년제 주최의 <백제문화제>로 개칭된 것으로, 사실상은 웅진백제의 최전성기부터 사비백제의 망국기에만 시공간적 범위가 한정되는 웅진·사비백제 문화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공주·사비의 백제문화제가 1994년에는 제1회로 갓 출범한 한성의 백제문화제와 연계함으로써 백제 역사상 존재했던 위례·웅진·사비를 모두 아우른 명실상부한 백제문화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으나 일회성의 행사로 그친 채 <한성백제문화제>와 사실상의 <부여공주백제문화제>로 양분되고 말았던 것도 <한성백제문화제>가 <부여공주백제문화제>에 대비되어 백제문화제로서 지니는 상대적 특수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웅진·사비백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백제건국신화의 보편성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웅진·사비백제의 웅진·백제건국신화 특수성에 대비되는 한성백제만의 한성백제건국신화의 한정성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에만 한정되는 백제국모묘(百濟國母廟) 제의⁸⁾를 서두에 추가하든지, 아니면 이후의 연쇄적인 체험존들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두잉 또한 현행의 백제왕비선발대회, 백제왕행

8) 온조왕 즉위 17년에 모후 소서노(召西奴)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다(“十七年, (中略)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始祖溫祚王>, 『百濟本紀』第一, 『三國史記』卷第二十三). 현존하는 온조왕묘(溫祚王廟)는 고려 1465년(세조 11)에 건립된 것으로 한성백제 시대에 온조제향이 존재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다.

군식, 백제마을체험, 백제떡거리체험 등 공주와 부여의 <부여공주백제문화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한성·웅진·사비백제 보편의 백제문화를 재매개화 한 것에서 탈피되어야만 한다. 서울의 특수한 지리적 경계를 배경으로 한 한성백제의 신화적 공간성을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의 새로운 스토리두잉 결과물은 현행의 <부여공주백제문화제>의 그것과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⁹⁾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¹⁰⁾ 첫 번째는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에 나타난 <한성백제신화>의 공간적 구현양상과 스토리두잉 시스템을 <한성백제건국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존과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존으로 크게 양분하여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는 현행

-
- 9) 본 연구의 <한성백제문화제>와 <공주부여백제문화제>를 비교 검토한 위에서 차별성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기반하고 있는 <한성백제신화> 고전서사원형의 특수성을 신화적 공간과 겹쳐지는 현행 도시 서울의 공간 위에서 축조하는 방식으로 <공주부여백제문화제>와 차별화 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독자성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한성백제문화제>와 <공주부여백제문화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의 비교도 중요한 아젠다이다. 하지만 이 아젠다는 본 고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논고에서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 거대한 주제인 만큼, 원고 분량의 제한이 있는 본 투고논문에서 함께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 후속연구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주기 바란다.
- 10) 지금까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지리학계의 기초적인 현장 보고 수준의 연구[이혁진·최화열(2009), 「한성백제문화제의 관광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진지리학』 제19권 제1호, 한국사진지리학회]와 국문학계의 신화성 및 창작방안 연구[권도경(2011), 「서울 공간의 신화적 상상력과 ‘한성백제문화축제’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안」, 한국어문학회 2011년도 전국학술대회논문집, 2011.10.29.], 두 편만이 제출되어 있다. 전자의 연구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성립과정과 관광적 특징을 사진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한성백제문화제>의 개요와 현황을 파악하고 축제의 역사와 성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자의 연구는 본 연구의 전신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 서울의 공간적 신화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성백제문화제>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석촌동, 풍납동 일원의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한 <한성백제신화>의 재매개화콘텐츠로서의 <한성백제문화제>가 지니는 스토리두잉 리모델링 입점을 학술적 차원에서 하나의 선택지로서 제안한다. 이를 통해 뒤 이은 후속연구에서 <한성백제건국신화>의 특수한 신화적 콘텍스트와 상상력을 한성백제의 지리적 경계인 서울 도시 공간을 중심 센터로 하여 리모델링 스토리두잉 할 수 있는 기획 제안서의 기반을 학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¹¹⁾

2. 신화적·역사적 사실의 특수한 고정성과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의 보편적 가변성

기실, 특정 신화를 고전서사원형으로 삼고 있는 축제는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민속으로 놀이의 보편범주에 포함된다. 축제가 놀이의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은 범박하게 말해서 축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학습적 대상에 등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축제 참가자들이 축제를 소비하는 주된 방식은 배경적 역사의 학습이 아니라 놀이의 즐거움과 역사적 이미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편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특정 축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재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향유층의 판단과 선택적 재구성일 수 있다. 물론, 전근대 시대의 고전민속 축제들에서는 의례, 규범, 역사적 지식에 대한 학습과 훈련도 중요한 연동기를 구성한다. 하지만 의례, 규범, 역사적 지식에 대한 학습·훈련 그 자체가 아니라 의례, 규범, 역사적 지식을 수단으로 한 놀이성의 구현을 궁극적인 보편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민속축제들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1) 본고는 <한성백제문화제>와 <부여공주백제문화제> 분석을 위해 팸플릿, 홈페이지, 신문잡지기사, 선행논문 등을 사용하였다.

고전민속축제 중의 하나인 <장좌리(長佐里) 당제>를 예로 들어 축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좀 더 따져보자. <장좌리 당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다. <장좌리 당제>는 1982년의 제20회 남도문화제에 우수 민속예술 27건 중의 하나로 초빙되었는데, 제1회부터 제20회까지의 초빙작 중에 무형문화재 지정작은 <장좌리 당제>를 포함한 단 15건에 불과¹²⁾하다. 그 중에서 제16회 <승주 달집태우기놀이>를 제외하면 <장좌리 당제>만이 민속축제에 해당한다. <장좌리 당제>가 고전민속축제로서의 상대적인 예술성과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장좌리 당제>는 2018년에 개최된 제59회 한국민속예술제와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도 우수민속축제로 초청받은 바 있다.¹³⁾

<장좌리 당제>는 원래 장보고(張保臯)와 정년(鄭連), 해일대사(慧日大師)를 각각 주신과 부신으로 모셨다가 통일신라 정부의 장보고 칭해진 혁파와 함께 장보고 대신 송징(宋徵)을 주신으로 제향해온 완도(莞島)의 전통적인 민속축제다. 송징을 주신으로 한 <장좌리 당제>라는 축제, 즉 고전민속의 향유는 851년에 이루어진 장보고 <장좌리 당제> 향유층의 김제 이동과 함께 장보고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장좌리 당제> 향유의 표층적 맥락에서 심층으로 이동시킨 뒤 송징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서 장보고의 이형태로 향유¹⁴⁾하는 역사적 사실의 재해석과 변

12) 제6회 <해남 강강술래>; 제7회대회의 <진도 상여놀이>; 제8회 <화순 한천농악>, <여천거문도뱃노래>; 제11회 <여천 현천 소동패놀이>, <구례영산회상곡>; 제12회 <신안장산도 들노래>, <진도 다시래기>; 제13회 <해남우수영 부녀농요>; 제14회 <신안가거도 멀치잡이노래>, <진도 북놀이>; 제16회 <승주 달집태우기놀이>; 제17회 <고흥 한적 들노래>; 제20회 <완도 장좌리 당제>; 제22회 <순천 구산 물보기 굿>이 여기에 해당한다.

13)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전 축제의 형태를 완성한 결과 최근 들어 우수민속축제로 연속 인정받은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좌리 당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 고전민속축제의 보편성, 특수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본다.

14) 권도경(2007), 「장보고 구비 전승의 변동 단계와 그 현재적 맥락」, 『신라문화』 29,

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현대에 새롭게 창조된 현대민속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온 고전민속이라 할지라도 신화와 역사에 대한 향유층의 상상력과 선택적 판단에 의해 통시적 향유맥락이 재편되어 나간다는 축제의 속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신화·역사의 변주란 고대민속에서부터 현대민속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축제의 보편적 놀이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축제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재해석과 변형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신화적·역사적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는 주변 축제들이 다수 존재할 때, 해당 축제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을 복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도 <장좌리 당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완도 <장좌리 당제>는 1982년 남도문화제 출연을 계기로 장보고 주신 추배를 단행한 바 있다. 현재 완도 장좌리 당집의 전면에 걸려 있는 것은 송징이 아니라 장보고로, 장보고는 공동주신인 송징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한 대접을 받고 있다. 완도 <장좌리 당제> 향유층이 1982년 이후로 장보고에게 사실상 단독 주신에 가까운 제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송징을 주신으로 한 완도 장좌리 인근의 중도리, 화개리, 대구리, 부흥리, 대신리, 대야리, 고마리, 사후리, 군내리 당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982년 남도문화제 출전을 결정한 완도 장좌리 당제 향유층에게는 무수한 남도 지역 당제와의 문화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중도리, 화개리, 대구리, 부흥리, 대신리, 대야리, 고마리, 사후리, 군내리 당제와의 동일한 자신들의 송징 주신 당제를 특수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⁵⁾ 즉, 완도 <장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5) 완도 일대 마을 당제에서 고려말 삼별초의 입도와 함께 이루어진 삼별초 장군 송징 주신으로의 교체 이전에 보편적인 해양 당신으로 존재했던 달도리의 송대할머니

좌리 당제>의 향유층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고전민속 축제 프로그램의 놀이성을 한국 전역에 분포하는 당제의 ‘제사’라는 이미지화된 보편성에 한정되는 현실태를 탈피하여 자신들의 소비재인 완도 장좌리 당제만의 차별적인 ‘제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된다.

기실, 1968년의 문화재관리국의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완도 장좌리 당제 향유층은 송징을 장보고와 동일신격으로 인식¹⁶⁾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징이란 기표 속에 장보고란 기의를 담는 향유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말 이후로 송징의 기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완도 장좌리 장보고 제향 맥락은 1960년대 말부터 완도 청해진 유적 조사¹⁷⁾를 위해 입도한 일군의 학자들이 완도 <장좌리 당제>를 장보고 당제로 교정해준 학술적 조언¹⁸⁾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송징 기표의 표층 밖으로 나올 힘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2년의 남도문화제 출전을 계기로 제기된 완도 <장좌리 당제>의 상대적 특수성 확보의 필

정도리의 송대장군까지 포함하면 범송징 주신 제의를 배향하는 마을은 11개로 늘어난다. 송대할머니·송대장군은 고려말 이전에 완도 일대 당신으로 존재했던 보편 주신격으로 송징이 송대장군으로 지칭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송대할머니·송대장군은 송징을 포함하는 완도 당신 체계에서 송징보다 상위에 위치한 주신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권도경(2007), 「송징 전설의 형성 과정과 계열 분화에 관한 연구 — 장도 당제 계열과 고려 삼별초 장군 계열에 나타난 송장군 전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퇴계연구소.

- 16) 「장좌리 장도 당제」[이두현(1968), 『민속자료조사보고서』 9, 문화재관리국]에 해당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 17) 『장도·청해진 — 유적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편, 2001.
- 18) 「송징장군의 죽음」[문장옥(1995), 『완도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p. 436] 텍스트 속에 1960년대 후반기부터 완도 장좌리에 입도한 학자들이 완도 <장좌리 당제>의 본모습이 장보고 제의에 있다는 학술적 교정을 장좌리 당제 향유층에게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적시된 「송징장군의 죽음」을 편집한 『완도군의 문화유적』의 출판 시기는 1995년이지만 「송징장군의 죽음」이 채록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기로 명시되어 있다.

요성은 장보고 제향의 기의가 송징의 기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던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술적·문화적 리모델링에 의한 축제의 신화·역사적 원형질 복구와 특수성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변형이 축제 향유층의 온전히 자발적인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환경세계의 압도적인 압력에 대응한 것으로 축제 향유층에게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변형 이전 상태로 회귀하려는 무의식적 지향성이 잠류해 있을 때, 학술적·문화적 리모델링 기획 제안이 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이미 변형된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복구 역시 신화·역사적 사실에 대한 축제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자발적인 재해석과 판단, 그리고 선택과 재구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학술적·문화적 리모델링 기획 제안은 축제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자발적인 재해석, 판단과 선택, 재구성 과정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무수한 선택지 중의 하나이지 신화·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술적·문화적 강요가 아닐뿐더러, 그렇게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완도 지역 내에서는 물론 전국 각지에 산재하는 당제의 무수한 하위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제사’라는 보편적으로 이미지화된 프로그램으로서만 소비하는 대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남 완도군 장좌리 내에서라면 대중은 최소한 자신이 향유하는 고전민속 축제가 장보고 당제인지 아니면 송징 당제인지를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기반 위에서 구분적으로 인식하면서 소비하며, 전남 완도군 전역으로 확대하자면 완도읍 <장좌리 당제>인지 생일면 <서성리 당제>인지를 각종 축제 브로셔나 안내판, 해설사의 설명 등을 참조하는 가운데 신화적·역사적 배경과 비교해 가면서 소비한다. 한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자면 대중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

수한 신화적·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장좌리 당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의 <상산마고당제> 중에서 자신이 문화적으로 소비할 고전민속축제를 미리 선택한 후에 본격적인 관객으로서 축제에 참여한다. 축제 참여 도중에도 대중은 축제장 곳곳에 비치된 팸플릿, 안내문구,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비교해가며 해당 축제만의 특수한 신화적·역사적 배경을 환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대중이 전남 완도군 장좌리 송징 당제와 장보고 당제, 전남 완도군 <장좌리 당제>와 전남 생일면 <서성리 당제>, 전남 완도군 <장좌리 당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상산마고당제>를 각각의 특수한 신화적·역사적 맥락과 관계없이 오로지 동일한 보편적인 ‘제사’로 이미지화 된 프로그램만으로 소비하는 대중은 없다는 것이다.¹⁹⁾

이 지점에서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문제는 축제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변형 범위가 될 것이다. 즉, 어느 선까지 축제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재해석·판단과 선택적 재구성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일단, 본질적으로 특정 축제콘텐츠를 여타의 축제콘텐츠와 차별화 시키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성이란 신화적 원형성의 외부에만 위치한 것이 아니다. A당제라는 고전민속 축제콘텐츠의 고전서사 원형에는 B당제의 고전민속 축제콘텐츠와 공유하는 보편적인 당제의 신화적인 프로토 타입(prototype)과 함께 B당제의 고전민속 축제콘텐츠와 차별화 되는 것으로 A당제만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차별화 되는 신화적인 프로토 타입이 존재한다.

19) 만약 대중을 각각 특수한 신화적·역사적 맥락과의 관련성 하에서 전국 각지의 당제를 차별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이미지화된 동일한 ‘제사’ 프로그램만으로 향유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문화 비평가가 있다면 이는 대중의 문화향유 주체성을 무시한 오만이자 월권이 될 것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혁파 이후부터 장보고 당제에서 송징 당제로 전환했다가 1982년부터 장보고 당제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 <장좌리 당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현재 보편적인 <장좌리 당제> 프로그램은 당굿-길굿-들당산굿-제례-날당산굿-굿물-우물굿-사장굿²⁰⁾의 유형적인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해진 혁파 이전 시기에 존재했다가 1982년 이후부터 장좌리 당제에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장보고 당제와 청해진 혁파 이후부터 1982년까지 존재했던 송징 당제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장좌리 당제>의 신화적인 프로토 타입에 대응되는 유형적인 프로그램 체계가 된다. 여기에는 <장좌리 당제>가 각각 송징·장보고 당제였을 시기에 첨가되어 송징·장보고 신화적 프로토 타입의 특수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던 바, 송징·장보고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응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제례는 송징의 헌식을 송징의 군사들에게 길거리밥²¹⁾으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되는 바, <장좌리 당제>가 송징 당제였을 때의 송징과 성립되었을 송징 관련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송징 신화적 원형성의 흔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반면, 굿물은 장보고가 해적을 물리치고 청해진으로 환진하는 전승락(戰勝樂)·선승락(船勝樂)²²⁾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되는 바, <장좌리 당제>가 장보고 당제였을 때 형성되었을 장보고 관련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장보고 신화의 원형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여타의 축제와 구분되는 특정 축제의 신화적 원형성이란 관련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수한 역사적 사실과의 결합을 통해 특정 축제의 신화적의 차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장좌리 당제>가 장보고 단독 주신 당제로 이행되든 송징 단독 주신 당제로 이행되든 양자를 구성하는 개별프로그램들

20)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당제」, 『한국의 마을신앙 下』, 국립민속박물관, 2007; 「완도읍 장좌리 장좌마을 당제」, 『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1995.

21) 나경수(1998),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22) 「완도장좌리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2009.

의 선택적 재구성 및 변형적 부가는 장보고 혹은 송징 각각의 신화적·역사적 원형·사실과 관련된 상상력 속에 위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 축제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재해석·재구성의 허용 범위는 관련 역사적 맥락의 기반 하에서 특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신화적 프로토 타입의 유형성 내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축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신화적 프로토 타입의 유형성이 아닌 여타의 다른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신화적 프로토 타입을 선택하거나 일부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축제의 차별적인 특수성이 해체되거나 아예 다른 축제의 유형적 범주로 넘어가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축제의 고전서사원형은 향유층으로 하여금 해당 축제를 여타 축제와 다른 차별적인 특수한 문화콘텐츠로 인식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시작 시점에는 A당신화의 고전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A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인근 지역 혹은 여타 다른 지역 B축제가 재매개화 대상으로 삼은 B당신화의 고전서사원형을 포함하게 된다면, 해당 A축제는 더 이상 B축제와 차별화 된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축제가 발생 시점에서 해당 축제의 근간으로 삼은 특정 고전서사원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고전서사원형이 특정 축제의 정체성을 해당 축제와 분지되는 전통문화의 원류 속에서 생성된 여타의 축제들의 그것과 구분시켜 주는 기준점이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의 소산인 특정 축제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변주할 당위성을 도로 신화·역사에서 찾고자 하는 환원론적 오류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상기 전제에서 제시한 것은 특정 축제 프로그램의 창조·변형의 당위성이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거하여 신화적·역사적 원형·사실이 유형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해당 축제의 해당 축제의 유형적 프로토 타입이 선택적으로 유지되어나가는 메커니즘에 있다는 것이지, 역사와 신화 그 자체가 현행 축제 프로그램

의 문제점 개선 당위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축제 프로그램의 창조·변형의 배경은 반드시 축제 기획팀의 인터뷰에서 찾아질 필요가 없다.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에 의거한 신화적·역사적 원형·사실의 유형적 창조·변형의 메커니즘은 축제 기획팀의 의식적인 기획의도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집단무의식으로 계승되어 오다가 현시점에서 발현된 신화적·역사적 유전형질(mythical·historical genetic trait)²³⁾의 소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속축제의 현대화는 유전형질로 전승된 과거의 양식적·장르적 규칙·규범·관습과 역사적·사회적 사실·정보·지식에 현 시점의 당대적으로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부응한 가변적인 연행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후자의 당대적 가변연행은 최대한의 독자적 자유도를 지닌 축제의 놀이성으로 탐색되는 동시에 양식적·장르적 규칙·규범·관습과 역사적·사회적 사실·정보·지식이 형성하는 축제의 법칙성에 일부분으로 수렴됨으로써 여타 축제와 해당 축제를 차별적으로 분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특정 민속축제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사회적 사실·정보·지식은 양식적·장르적 규칙·규범·관습을 기준점으로 하여 민속축제의 현재화 된 현대축제가 위치한 현재의 역사적·사회적 사실·정보·지식과 겹쳐지는 것으로, 이들의 배증(倍增) 관계에 의해 특정 민속축제를 현대화 한 현대축제는 해당 민속축제의 현대적 이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3) “신화적·역사적 유전형질”은 리처드 도킨슨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사용한 문화적 유전형질(cultural genetic trait)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이를 하위 층위로 구분 적용하여 만든 개념이다. 서사적 유전형질(narrative genetic trait)에 대한 개념은 다음의 논고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 참조하기 바란다. 권도경(2013), 「동남아 한류드라마의 한국고전문학 재생산과 한(韓)·동남아(東南亞) 서사코드」, 『아태연구』 20권 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pp. 129-165; 권도경(2014), 「동북아 한류드라마 원류로서의 한국고전서사와 한·동북아의 문화공유 경험」, 『동아연구』 제33권 제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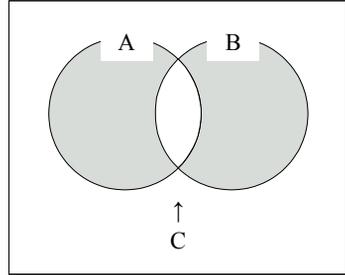
예컨대, <장좌리 당제>가 장보고 단독 주신 당제로 존재했을 때에는 제례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송징의 헌식을 송징의 부하들에게 길거리밥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보고의 헌식을 장보고의 부하들에게 길거리밥으로 나눠주는 형태였을 것이다. 장보고 단독 주신 <장좌리 당제> 시절의 제례 헌식과 길거리밥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굿물의 장보고 전승락·선승락에 연계되어 장보고의 역사적인 영웅행적과 결합된 장보고 신화적 유형성을 구성하게 된다. 반대로, <장좌리 당제>가 송징 단독 주신 당제로 존재했을 때는 굿물 프로그램이 장보고 전승락·선승락이 아니라 국가의 세미선을 탈취하여 완도민들에게 나눠주었던 송징의 미적추(米賊酋)²⁴ 일화와 관련된 일종의 미적추락(米賊酋樂)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송징 단독 주신 <장좌리 당제> 시절의 굿물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송징 제례 헌식과 길거리밥에 연계되어 고려 말기에 완도에 입도했던 삼별초 송장군들의 역사적인 영웅행적²⁵과 결합된 송징 신화적 유형성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장좌리 당제> 향유층이 장보고 관련 역사적 사실과 결합되어 있는 신화적 유형성 내부에서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장보고 제례 헌식, 길거리밥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장보고 굿물 전승락·선승락과 연계시키게 된다면 해당 <장좌리 당제>는 장보고 단독 주신 당제가 된다. 반대로 <장좌리 당제> 향유층이 송징 관련 역사적 사실과 결합되어 있는 신화적 유형성 내부에서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송징 굿물 미적추락을 새롭게 창조하여 송징 제례 헌식, 길거리밥에 부가시키게 된다면 <장좌리 당제>는 송징 단

24) 「송대장군가」(宋大將軍歌), 『石泉集』 제2책; 임억령(林億齡, 1496-1568), 임형택 편역(1992), 『이조시대 서사시』 하권, 창작과비평사, p. 23.

25) 송징이 역사적 실체가 없는 허구적 인물로, 고려 말에 완도에 입도했던 삼별초 출신의 여러 송씨 장군들을 허구화 한 상징 캐릭터란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권도경(2007), 「송징 전설의 형성 과정과 계열 분화에 관한 연구 — 장도 당제 계열과 고려 삼별초 장군 계열에 나타난 송장군 전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퇴계연구소.

독 주신 당제가 된다.

상기 도표를 통해 정리해보자면 C는 <장좌리 당제> 관련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보편적인 신화적 프로토 타입이고, A와 B는 C를 공유하되 각각 장보고·송징의 특수한 신화적·역사적 맥락과 향유층의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이 연계되는 의식적·무의식적 메커



[그림 1]

니즘 속에서 분화됨으로써 유형적인 차별성을 구축해 나갔거나 혹은 나가고 있는 장좌리 장보고 주신 당제와 장좌리 송징 주신 당제다. 현행의 장좌리 장보고 주신 당제와 장좌리 송징 주신 당제는 그대로 존재했던 장좌리 당제의 현대적 이본이 되는 동시에, 다시 현행의 장좌리 장보고 주신 당제와 장좌리 송징 주신 당제는 각기 통일신라와 고려말에 성립되었던 장좌리 장보고 당제와 장좌리 송징 당제의 현대적 이본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현행의 장보고 주신 당제와 송징 주신 당제는 고래의 <장좌리 당제>가 환기하는 보편적인 유형적 프로토 타입에 대한 계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고전민속 축제라면, 장보고가 남도문화축제 이후 <장좌리 당제> 주신으로 복권된 지 6년 후인 1996년부터 시작된 <완도 장보고 축제>²⁶⁾는 신화적·서사적 유형성과 완결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창조적 변형성을 강화한 현대민속축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장좌리 당제>가 아니라 <완도 장보고 축제> 쪽에 가까운 현대민속 축제다. 기획팀의 창조적 상상력이 관련 신화·역사의 유형적 원형성과 사실성을 벗어나 차별성 없이 비맥락화 되어 있는 축제들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드물게도 상대적으로 강한 신화적·역사적 유형성과 완결성 속에서 지속적인 창조적 변주를 추구해 나가고 있

26) <완도 장보고 축제>의 스토리두잉 시스템 분석과 리모델링 스토리두잉에 대한 학술적 제안에 관한 후고는 현재 준비 중이다.

는 것이 <한성백제문화제>의 성공비결이기도 하다. 전자의 강한 신화적·역사적 유형성·완결성은 매년 개최되는 <한성백제문화제> 각 편들을 <한성백제문화제>의 보편적 범주 내부에 위치해 있는 개별 이본들로 인식하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되며, 후자의 지속적인 창조적 변주는 매년 도별 <한성백제문화제>의 각 편들에 대한 축제 관객들의 흥미를 유지하게 하는 어트랙션이 된다. 축제 관객들로 하여금 동일한 유형적 지속성 속에서 매년도별 차별성을 찾아서 즐기게 하는 능동적 경험성의 부여야말로 여타 백제문화축제들과 분지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성공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어워드의 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불리는 피너클어워드 6연속 수상과 제6회 축제콘텐츠대상은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의 부단한 자기개선 전통이 이루어낸 성과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바, 본 리모델링 입안점 제안은 지금까지 <한성백제문화제>가 문화적 차원에서 전개해온 자기개선의 역사를 학술적 차원에서 진행한 접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신화> 공간적 구현양상과 스토리두잉 시스템

가장 최근인 제17회를 중심으로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 시스템을 스토리체험존(story experience zone) 별로 구조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 구조는 거시적으로 크게 두 개의 스토리체험존의 연쇄로 단계화 되어 있다.

- ① 한성백제 시조신화 스토리체험존
- ② 한성백제 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

①은 <한성백제문화제>의 개막식에 해당하는 스토리체험존으로 <동명제>, <혼불채화식>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story experience stage)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동명제>는 백제 초기 적석총을 스토리체험공간으로 한 것으로, 한성백제 시조 온조왕이 시행한 동명제를 재현한 제의로 규정되어 있다. 원래 <동명제>는 1994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의 원년 스토리체험스테이지가 아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제1회(1994)부터 제3회(1997)까지는 <동명제> 스토리체험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제4회(1999) <한성백제문화제>부터 시작된 <동명제>는 제7회(2005)까지 거행된 뒤에 제8회(2007)부터 한성백제 역대 왕들들 모두에게 제향을 올리는 <백제고분제>로 변경되었다. 제14회(2014)부터 제16회(2016)까지 <한성백제문화제>의 개막식 스토리체험존에서 삭제된 <동명제>는 제17회(2017)부터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이러한 동명제는 백제왕실의 종족시조인 동명왕께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 행사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한성백제 종족 시조제의(始祖祭儀)를 현대적으로 재매개화 하여 극화한 스토리체험스테이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현대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방이동, 풍납동 일대의 공간에 <동명제>로 현재화 된 동명제 배향이 <한성백제문화제>의 전문연기자 스텝진이 분한 온조왕 캐릭터에 의해 주도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① 스토리체험존의 <동명제>는 <온조왕 건국신화>, 즉 <한성백제 건국신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성백제 건국조인 온조왕은 즉위 원년인 기원전 18년 5월에 동명왕사당을 건립함으로써 한성백제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동명제>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를 통해 개막을 선언하는 것은 축제 참가자들을 <한성백제문화제>로 재매개화 되어 있는 <한성백제신화>라는 고전서사원형의 스토리유저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된다. 현재의 <한성백제문화제> 참가자들은 <동명제>를 통해 한성백제 왕실의 종족시조인 동

명왕 제의를 체험함으로써 기원전 18세기에 동명사당(東明廟)을 건설하여 동명제를 지냈던 온조왕²⁷⁾과 한성백제인들에게 자신을 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방이동, 풍납동 일대의 한성백제 유적지를 스토리공간으로 하여 현재적으로 구동되는 거대한 <한성백제신화>의 스토리 속에 <한성백제문화제> 참가자들이 자신을 투입시킴으로써 <한성백제신화> 캐릭터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한성백제신화>의 스토리두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동명제>가 <한성백제문화제> 참가자들을 <한성백제신화>의 스토리 유저로 전환시키는 오프닝 스테이지였다면, <혼불채화식>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참가자들을 <한성백제신화> 캐릭터로 변환시키는 스테이지가 된다. <혼불채화식>에서 채화되는 혼불이라는 것이 곧 한성백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명제> 체험을 통해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유저가 된 축제 참가자들은 <한성백제문화제>의 본무대 체험존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매개화 될 <한성백제신화>의 캐릭터로 치환되게 된다. <한성백제문화제>로 재매개화 되어 있는 <한성백제신화>의 현실적인 스토리유저인 동시에 <한성백제신화> 서사 내적인 캐릭터가 되는 중의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한성백제문화제> 참가자가 확보하게 되는 캐릭터 속에는 <한성백제문화제>의 고전서사원형인 <한성백제신화> 등장인물로서의 서사적 캐릭터성과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유저로서 스토리두잉을 위해 선택한 아바타(avata)적 캐릭터성이 중첩되어 있다. <한성백제문화제> 참가자들은 <혼불채화식>에서 채화되는 혼불을 매개로 <한성백제신화>의 텍스트 내적인 서사전개를 위한 허구적 캐릭터성과 <한성백제문화제>의 현재적인 재매개화 스토리두잉을 위한 현실적 아바타성을 이중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혼불채화식> 스토리체험스테이지는 <한성백제문화제>의 본무

27) “元年, 夏五月, 立東明王廟.”; <始祖溫祚王>, 『百濟本紀』 第一,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대 스토리두잉을 위해 축제 참가자들을 <한성백제신화>의 캐릭터로 전환시키는 일종의 마스터키와도 같은 스토리단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는 <한성백제문화제>의 본무대에 해당하는 스토리체험존으로,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은 한성백제 국왕들을 현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방이동, 풍납동을 신화적 공간으로 하는 <한성백제문화제>로 불러냄으로써 그들의 왕력(王歷) 이야기에 기반 한 스토리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이다. 한성백제 역대 왕들의 왕력기사(王歷記事)에 기술되어 있는 즉위식, 신성훈, 왕도구축, 왕권변동사, 대외전쟁, 제국경영, 국내행정, 국제외교, 문화전파, 영토정복 등이 주된 체험스토리가 된다. 한성백제 역대 왕들의 왕권변동사, 국가경영, 통치업적과 관련된 고전서사원형을 체험스토리로 한 스테이지들의 연쇄는 ②를 <한성백제 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사전 및 당일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스토리창작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 <근초고왕 어가행렬>은 사전·당일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스토리창작이 가능한 유형이 되고,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는 불가능한 유형이 된다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먼저,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은 <한성백제문화제>의 가장 마지막 날에 개최되는 스토리체험스테이지로, 풍납토성, 몽촌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고분군석촌호수가 합쳐져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주된 스토리체험공간 외부를 행진하는 스토리체험행렬이다.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전신이 탄생한 제2회(1995)부터 제9회(2008)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7길 21을 아우르는 구역에서만 스토리체

힘이 이루어졌으나, 제10회(2010)부터는 위례성대로까지 스토리체험공간의 주변 행진로를 확장했다.

이러한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을 모두 합쳐 놓은 통합적인 형태다.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은 제2회(1995) 때 처음 시작되어 제3회(1997) 때부터 <한성백제왕 행렬>로 이름을 바꾼 뒤 제4회까지 지속되었던 <역사문화행렬>에 모태를 둔 것이다. 당초 개막식의 <동명제> 없이 출발했던 제2회의 <역사문화행렬>과 제3회의 <한성백제왕 행렬>은 제4회(1999)부터는 <동명제>와 결합되어 진행되었는데,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은 이처럼 <동명제>와 결합되어 있던 제4회(1999)의 <한성백제왕 행렬>을 개칭한 스토리체험스테이지가 된다. 제4회(1999)부터 <동명제>의 전신인 <검단지>를 <동명제>로 개칭하여 개막식으로 분리²⁸⁾시킨 제4회(1999)부터 <온조왕 남하행렬>, <고이왕 백제완성행렬> 등으로 구성된 <백제제왕행렬>의 하위 스토리체험스테이지와 구분하기 위해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제3회(1997)의 <한성백제왕행렬>은 <온조왕 남하행렬>, <고이왕 백제완성행렬>, <근초고왕 진군행렬>,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 <문화유산행렬>, <일본 수교행렬>, <수교국 축하행렬>, <검단지>, <백제 전성기 재현 역사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바, 제1회(1994), 제2회(1995)의 <근초고왕 진군행렬>, <온조왕 제례의식>을 통합하되 <고이왕 백제완성행렬>, <문화유산행렬>, <일본 수교행렬>, <수교국 축하행렬>, <한성백제왕 역사극>을 결합시킨 형태가 된다. 개막식의 <동명제>에 이어 <비류왕 즉위식>, <근

28) 검단산(黔丹山)은 오늘날의 하남시 창우동과 광주시 동부읍 사이, 하남시청으로부터 동쪽으로 5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으로, 한성백제 하남위례성의 진산이었다. 한성백제왕이 제천제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는 바, 제4회(1999)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검단산에서 치러진 한성백제왕들의 제천제를 고구려 건국시조인 동명성왕 주몽을 제향하는 <동명제>로서의 <검단지>를 거행했다. 제5회(2001)부터는 한성백제의 종족시조인 동명왕에게 제향하는 <동명제>로 바뀌었다.

구수왕 즉위식>, <근초고왕 즉위식>, <온조왕 즉위식>을 별도의 스토리 체험스테이지로 독립시켰던 제5회(2001), 제6회(2003), 제7회(2005), 제8회(2007)를 제외하고는, 14회(2014)부터 <한성백제왕 갈라퍼레이드>가 별도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로 재분리 되어 나가기까지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스토리체험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제3회(1997)의 <한성백제왕 행렬>로 출발했을 때 근초고왕의 평양성 정복과 일본 문화전파를 소재로 한 <근초고왕 역사극>으로 공연되었던 <한성백제왕 역사극>만 제10회(2010), 제15회(2015), 제16회(2016)에서 각각 <개로왕·도미부인 역사극>, <온조왕 역사극: 맏의 아들>²⁹⁾, <도미부인(개로왕) 역사극>으로 교체되었을 뿐, 대부분의 <한성백제왕 역사극>이 한성백제 최전성기인 근초고왕대를 재현한 <근초고왕 역사극>이라는 점은 동일³⁰⁾하다.

이러한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은 한성백제 국왕 부부의 어가행렬을 필두로 하여 문무신료와 사농공상민으로 코스프레한 스텝과 송파구 주민 출신 사전 참가자들이 <한성백제문화제>의 축제장 밖을 행진한다. 스텝들과 사전 신청 주민 참가자들이 한성백제의 각계각층으로 구분된 행렬군으로 코스프레를 한 채 <한성백제문화제>의 축제장 외부를 돌면서 퍼레이드를 벌이기 때문에, 한성백제 역대 왕들이 대를 이어 구축한 한성백제의 통치시스템을 계급·직종별 한성백제인 캐릭터 유형군들을 통해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성백제 역사문화

-
- 29) 15회(2015)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마지막에 공연된 <한성백제왕 역사극> 역시 제13회(2013)와 마찬가지로 뮤지컬 장르였다. 제13회와 제14회는 총17회까지 거행된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 스토리체험스테이지 중에서 뮤지컬로 <한성백제왕 역사극> 스토리체험부스를 진행한 단 두 개의 경우였다.
- 30) 제13회(2013)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에서 공연된 뮤지컬 <이도한산> 역시 주인공이 근초고왕이라는 점에서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전신인 <한성백제왕행렬>이 최초 시행되었던 제3회(1997) <한성백제왕 역사극>의 근초고왕 레파토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거리행렬> 스토리체험스테이지의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현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방이동, 풍납동에 남아있는 <한성백제신화>의 신화적 스토리체험공간을 외부에서 아울러서 일주하는 가운데, 당초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을 통해 현대의 도시 서울로 현재화 되어 소환되었었던 모든 한성백제인들과 대면하고 있다는 환상적 체험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와 달리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주된 스토리체험공간인 축제장 내부에 위치해 있는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이다. 풍납토성, 몽촌토성, 방이동고분군, 석촌동고분군석촌호수를 아우르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부의 축제장에서 스토리체험이 이루어진다.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는 백제마을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체험스테이지이고,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은 스토리체험공간인 축제장 내부를 행진하는 행렬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이다. 모두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전신인 제3회 <한성백제왕행렬>로부터 분리·독립해 나온 모자 관계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축제장 내부에서 진행되는 <한성백제 왕권신화>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 중에서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로부터 제일 먼저 분리·독립해 나온 경우다. 제14회(2014)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스토리체험스테이지로 성립된 이래 가장 최근인 제17회(2017)까지 지속된 스토리체험스테이지가 된다. 제4회부터 <검단제>를 <동명제>로 바꾼 이래, 제13회(2013)부터 <온조왕 남하행렬>, <고이왕 백제완성행렬>, <근초고왕 진군행렬>,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 <문화유산행렬>, <일본 수교행렬>, <수교국 축하행렬>, <백제 전성기 재현 역사극>로 확립되어있던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에서 <고이왕완성행렬>,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

<문화유산행렬>만을 따로 떼 내어 일종의 하이라이트 스토리체험스테이지로 독립시킨 것이 바로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다. 16회(2016) 때 잠깐 <왕·왕비의 나들이>, <근초고왕 승전행렬>, <죄인 압송행렬>로 변형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 회차의 대체적인 체험스토리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15회(2015) 때는 <고이왕행렬·행차행렬>, <근초고왕 출정행렬>, <문화유산행렬>로 되어 있었고, 제17회(2017) 때는 <고이왕행차행렬>, <백제와 연나라 추격전>, <왕인과 세계문화>로 되어 있어서 <고이왕완성행렬>,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 <문화유산행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언뜻 제목만 보면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의 보편적인 스토리체험구조에서 살짝 어긋나 보이는 백제군·연나라군의 추격전과 왕인·세계문화도 실제로는 각각 근초고왕의 요서 정복원정행군과 한성백제문화유산행렬의 테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목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16회의 체험스토리구조의 실제도 마찬가지여서,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의 보편적인 스토리체험구조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왕·왕비의 나들이>, <죄인 압송행렬> 역시 한성백제의 기틀을 완성한 고이왕 완성행렬의 테마 내용을 이분화 하여 구체화 한 것에 해당한다.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는 한성백제 역대 왕들의 왕권변동사, 국가경영, 통치업적 중에서 온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개로왕의 고전서사원형만을 체험스토리로 한 스토리체험스테이지이다. <한성백제문화제>의 축제장 내부 전역을 도는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와 달리 <한성백제왕을 만나다>는 오직 백제마을 세트장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장 소규모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가 된다. 스토리체험의 직접적인 창조성보다는 간접적인 관광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공연의 성격이 가장 크다. <백제 전성기 재현 역사극>이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스토리체험스테이지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온조왕 즉위식>, <6좌평 임명식>, <근초고왕 승전 퍼레이드>, <개로왕 역사극(도미부인)>의

총 4개의 스토리체험테마(story experience theme)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스토리체험스테이지는 <온조왕 남하행렬>, <고이왕 백제완성행렬>, <근초고왕 진군행렬>,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 <문화유산행렬>, <일본 수교행렬>, <수교국 축하행렬>, <백제 전성기 재현 역사극>로 확립되어있던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체험스토리구조에서 <온조왕 남하행렬>, <고이왕 백제완성행렬>, <근초고왕 진군행렬>, <백제 전성기 재현 역사극>을 따로 떼내어 독립시킨 스토리체험스테이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의 <6좌평 임명식>은 고이왕 때 확립된 6좌평제도를 고전서사원형으로 한 스토리체험테마라는 점에서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스토리체험구조 속에 위치해 있던 <고이왕 백제완성행렬>의 세부 내용을 독립·확장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초고왕 어가행렬>은 <온조왕 남하행렬>, <고이왕 백제완성행렬>, <근초고왕 진군행렬>,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 <문화유산행렬>, <일본 수교행렬>, <수교국 축하행렬>, <백제 전성기 재현 역사극>으로 이루어진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의 보편적인 체험스토리 구조에서 <근초고왕 진군행렬>,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만을 독립시킨 것이다.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와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의 퍼레이드진이 축제 스텝진으로만 구성되어 퍼레이드카 탑승자도 스텝진으로만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근초고왕 어가행렬>은 축제 참가자의 퍼레이드카 탑승을 위해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의 일부 스토리 체험 구간을 독립시킨 것이 된다. 축제 참가자들이 직접 축제 참가자들 스토리 체험성을 상대적으로 보다 확대한 것이다. 똑같이 축제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스토리메이킹(storymaking)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과의 차이점은 스토리메이킹의 사전계획·준비 유무와 스토리메이커의 유형 차이에 있다.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의 스토리메이킹이 <한성백제문화제> 스토리체험공간 주위에 상주

하는 거주민에 의한 사전계획·준비 결과물로 한정되는 반면, <근초고왕 어가행렬>의 스토리메이킹은 당일 축제 참가자들에 의한 돌발적·즉시적인 퍼레이드 참여에 의한 결과물로 오픈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4. <한성백제문화제> 리모델링 스토리두잉을 위한 학술적 입안점 설정

4.1. <한성백제신화> 고전서사원형의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연계성 문제

고전서사원형이 되는 <한성백제신화>의 신화성에 대한 사실관계 해석상의 문제는 <한성백제문화제>에서 가장 연원이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래 지속된 스토리체험스테이지인 <동명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실, <한성백제문화제>는 <동명제>의 신화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관계 오류를 애초부터 기반으로 깔고 출발했으나, 비교적 초기에 이를 수정한 바 있다. 예컨대, 제2회(1995)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 건국신화>와 <한성백제 왕권신화>에 해당하는 스토리체험존을 각각 <온조왕 제례의식>과 <역사문화행렬>로 스토리두잉화 한 바 있는데, 전자의 <온조왕 제례의식>은 <한성백제신화>의 고전서사원형 체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성백제의 건국시조인 온조왕이 기원전 18년에 현재의 <한성백제문화제> 스토리체험공간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방이동, 풍납동 일대의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한성백제를 건국³¹⁾한 후 수행했다고 명확하게 사료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하남위례성의 종족시조 동명왕 사당 건립과 역시 하남위례성 제천제(祭天祭) 거행³²⁾이다. 동

31) “溫祚都河南慰禮城，以十臣爲輔翼，國號十濟，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始祖溫祚王>，『三國史記』卷第二十三，「百濟本紀」第一。

명왕 사당 건립 후에 온조왕이 직접 건국과 즉위를 종족시조 동명왕에게 고했다고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후대 한성백제 왕들이 즉위와 동시에 동명왕 사당을 배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동명사당 고유제(告由祭)가 역대 한성백제 왕들이 왕권계승과 국가통치의 정당성을 종족시조에게 인정받는 한성백제왕 정례행사로 정립되어 있었음³³⁾을 인정할 수 있다. 동명사당에 한성백제 역대왕들이 올린 고유제이니 동명제라는 특수명사 부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온조왕 즉위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국사실만 적시되어 있을 뿐 명시적인 사실 기록은 없으나, 온조왕이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했다가 비류왕 사후 미추홀백제와 통일하여 국호를 백제(百濟)로 개칭³⁴⁾했다고 했으니 동명왕 사당 건립과 동시에 온조왕 즉위식이 거행되었던 사실도 인정이 가능하다. 역대 한성백제 왕들의 즉위 및 왕권계승 기록이 그들의 동명사당 배향과 동시에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명제는 온조왕 즉위식과 세트를 이룰 때는 <한성백제 건국신화>를 구성하고 역대 한성백제 왕들의 즉위식과 세트를 이룰 때는 <한성백제 왕권신화>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이처럼 <한성백제 건국신화>, <한성백제 왕권신화> 체계 속에서 온조왕 즉위식과 세트를 이루고 있는 동명제를 <검단지>란 정체불명의 제명(祭名)과 제향대상으로 스토리체험스테이지화 했다

32) “元年, 夏五月, 立東明王廟, (中略) 二十年, 春二月, 王設大壇, 親祠天地, 異鳥五來翔, (中略) 冬十月, 王築大壇, 祠天地.”, <始祖溫祚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33) 원래 한성백제의 동명제의는 왕실 종족시조 제의였으나, 고이왕 때부터 국가제사로 전환되는 동시에 신앙의 즉위의례로서 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인받는 즉위의례로 기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진원의 「백제 한성도읍기 동명묘(東明廟)의 실체와 제사」(『서울학연구』 61, 서울학연구소, 2015)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34) “沸流以彌鄒, 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始祖溫祚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가 <동명제>로 교체한 바 있다. 제3회(1997) 때 고구려 주몽왕에게 제향하는 <검단지>란 이름으로 스토리체협스태이지화 되었던 한성백제 종족시조제(宗族始祖祭)를 제4회(1999)부터는 범부여계 종족시조 동명왕을 제향하는 <동명제>로 바꿈으로써 고전서사원형인 <한성백제신화>에 대한 비상관성(非相關性)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신화> 속의 동명제가 지니는 본래 의미를 여전히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4회(1999)부터 시작된 <동명제>는 백제왕실의 종족시조인 동명왕에게 한성백제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온조왕이 즉위년부터 시작하여 한성백제 역대왕들이 지속했던 동명제의를 오늘날에 되새기는 동시에 현 대한민국과 송파구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493년간 한성백제시대를 꽃피운 왕들에 대한 제사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축제안내문에 의해 설명되어 왔지만 이는 동명제의의 실상과 거리가 있다.

<한성백제신화> 속의 동명제의는 고유제이지 제천제가 아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축제안내문이 설명하고 있듯이 <한성백제신화>의 동명제의는 백제왕실의 종조시조 동명왕에게 올리는 제향인 것은 맞지만, 동명왕에게 한성백제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제천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와 연대별 축제안내문에는 온조왕이 종족시조 동명왕에게 올렸던 동명제가 곧 제천제라고 적시해왔지만, 양자는 각각 별개의 개별적인 제의였다. 전자의 동명제는 백제왕실의 종족시조 동명왕에게 건국과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고유제이고, 후자의 제천제는 하남위례성의 산천신(山川神)에게 한성백제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일종의 산천제(山川祭)다. 전자의 동명고유제(東明告由祭)는 즉위와 거의 동시에 거행되지만, 후자의 제천산천제(祭天山川祭)는 즉위와 동시에 거행되기도 하고 외적의 침입 혹은 정복전쟁 행군 이전에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제향이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한성백제 건국조이자 초대왕인 온조왕은 즉위년의 하남위례성 축조 이후 동명사당을 건립한 뒤, 즉위 20년에 산천에 제천제를 올렸다. 주목할 것은 동명사당 건립만 했을 뿐 동명고유제를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후대 한성백제의 계승왕들이 모든 왕들이 동명고유제와 산천제천제를 지낸 것도 아니다. 동명고유제와 산천제천제 둘 중에 하나를 거행하거나 혹은 양자 모두를 거행하는 데에는 한성백제 왕실시조인 동명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일정한 왕권정당성 인정의 원칙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명고유제를 지낸 한성백제왕은 다루왕(多婁王)³⁵⁾, 구수왕(仇首王)³⁶⁾, 책계왕(責稽王)³⁷⁾, 분서왕(汾西王)³⁸⁾, 비류왕(比流王)³⁹⁾, 아신왕(阿莘王)⁴⁰⁾, 전지왕(腆支王)⁴¹⁾의 총 7명이고, 제천산천제를 지낸 한성백제왕은 다루왕⁴²⁾, 고이왕(古爾王)⁴³⁾, 비류왕⁴⁴⁾, 근초고왕(近肖古王)⁴⁵⁾, 아신왕⁴⁶⁾, 전지왕⁴⁷⁾의 총 6명이며, 동명고유제와

-
- 35) “二年, 春正月, 謁始祖東明廟.”, <多婁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 36) “十四年 (中略) 夏四月, 大旱, 王祈東明廟, 乃雨.”, <仇首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 37)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責稽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 38)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汾西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 39) “夏四月, 謁東明廟.”, <比流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 40)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阿莘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 41) “二年, 春正月, 王謁東明廟.”, <腆支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 42) “二月, 王祀天地於南壇.”, <多婁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 43) “五年, 春正月, 祭天地, 用鼓吹 (中略) 十年, 春正月, 設大壇, 祀天地山川, (中略) 十四年, 春正月, 祭天地於南壇.”, <古爾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 44) “十年, 春正月, 祀天地於南郊. 王親割牲.”, <比流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 45) “二年, 春正月, 祭天地神祇.”, <近肖古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제천산천제를 모두 지낸 왕은 다루왕, 비류왕, 아신왕, 전지왕의 총 4명이다. 동명고유제만 지낸 왕은 구수왕, 책계왕, 분서왕의 총 3명이고, 제천산천제만 지낸 왕은 고이왕, 근초고왕의 총 2명이다.

원칙적으로 동명제는 바로 전대왕(前代王)의 장자(長子)로서 전대왕이 미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왕통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천제 없이 동명제만 제향한 총3명의 한성백제왕은 모두 정비의 차자(次子)이거나 방계왕통(傍系王統)을 전대의 부왕(父王)으로 한 계승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거꾸로 보자면, 동명제만 제향한 총3인의 한성백제왕의 부왕이 동명제를 거행하지 못한 것은 출신이 차자이거나 혹은 방계왕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자인 전대 부왕과 방계왕자인 전대 부왕은 동명제 및 제천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우가 확연하게 대비된다. 전대 부왕이 차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대왕이 온조왕 이래의 왕통을 변동 없이 계승했다면 해당 전대 부왕의 시대에는 동명사당에 왕통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고유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동명제가 거행되지 않는다. 전대 부왕이 방계왕자인 경우에도 동명제의 제향 요건인 전대왕지장자(前代王之長子)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동명제가 거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신, 온조왕 이래로 이어져온 온조왕통(溫祚王統)을 방계로 교체했기 때문에 동명제가 아닌 방계왕통을 인정받을 별도의 제향이 필요해질 수는 있다. 전대 부왕이 차자이든 방계왕자이든 동명제만 제향한 총3인의 한성백제왕은 온조왕통의 직장자(嫡長子)가 아니거나 혹은 비온조왕통(非溫祚王統) 왕자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⁴⁸⁾

46) “又祭天地於南壇.”, <阿莘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47) “祭天地於南壇.”, <腆支王>,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48)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편수 과정에서 취사선택 때문에 당대 백제의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수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역사기록 가운데 훨씬 상세하다고 평가받는 『조선왕조실록』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거행되는 여러 국가제사를 모두 수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역사 관련 기록들은 기록들의

예컨대, 처음으로 단독 동명제를 제향 한 제6대 구수왕은 부왕인 제5대 초고왕(肖古王)이 제4대 개루왕(蓋婁王)의 차남이다. 초고왕은 개루왕의 차남이기 때문에 동명제를 지낼 자격이 안 되지만 초고왕의 적장자 구수왕이 온조왕통 내에서 직계로 왕권을 계승했기 때문에, 초고왕 이후 온조왕통 직계 적장자 왕계(王系)를 왕실종족 시조에게 바치는 동명고유제를 통해 새삼 확인받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 번째로 단독 동명제를 올린 제9대 책계왕의 부왕인 제8대 고이왕은 온조왕통의 적통이 아니라 방계⁴⁹⁾이다. 부왕인 고이왕이 방계로 교체한 한성백제 왕통을 적장자로서 계승하여 공고화 했기 때문에 책계왕에게 동명단독제(東明單獨祭)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10대 분서왕은 제9대 책계왕의 장자인 데다 부왕인 책계왕이 제8대 고이왕의 장자로서 방계왕통을 고착화 시키기 위해 동명단독제를 이미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동명단독제를 통해 적장자 왕계를 새삼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서왕에게 동명단독제가 요구되었던 것은 당초 책계왕이 즉위 2년째에 제향한 동명단독제를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방계 고이왕통(古爾王統)의 확고한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책계왕은 재위 12년간 『삼국사기』에 단 한 건의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즉위 12년인 298년에 한인(漢人)·맥인(貊人) 연합군의 침공에 참전했다가 적병에게 살해당한 것이 전부다. 부왕인 책계왕이 고이왕통의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급사⁵⁰⁾했기 때문에 왕권 확립의 책임이 제10

취사선택과 가치평가라는 프리즘을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본래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의 실존 그 자체와 등치될 수 없다. 그러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 하도록 훈련받은 사관에 의해 기록된 상기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사료들은 본래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의 실존성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미명 하에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의 적시 내용을 부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해당 분석결과야말로 폐기 혹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9) 조관휴(2014), 「백제 한성기의 왕계 변화와 대방군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4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대 분서왕에게 전가된 결과가 바로 고이왕통 적장자로서의 동명단독제 제향 의무였다고 할 수 있다.

동명제 없이 제천단독제(祭天單獨祭)만 지낸 총2명의 한성백제왕은 전대왕의 차자(次子)일 뿐만 아니라 방계왕자(傍系王子)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대왕의 차남이니 동명제를 제향할 자격이 없는 데다 애초에 온조왕통의 적장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명제 제향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방계왕통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동명제가 아니라 제천제를 제향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초로 제천단독제를 지낸 제8대 고이왕은 제4대 개루왕의 차자이자 제5대 초고왕의 동모제(同母弟)로 알려져 있지만, 개루왕과 고이왕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 차이에 근거해 볼 때 고이왕은 개루왕의 방계 후손이거나 혹은 아예 온조왕통의 부여씨(扶餘氏)가 아닌 비류왕통(沸流王統)의 우씨(優氏)⁵¹⁾로 고구되기도 한다. 고이왕은 비온조계(非溫祚系) 방계왕통의 증시조이기 때문에 온조왕계(溫祚王系)의 종족시조인 동명왕에게 고유제를 올리지 못하고 한성백제 강역의 산천신(山川神)에게 제천제를 제향함으로써 방계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 된다. 한편, 마지막 제천단독제의 주재자가 된 제13대 근초고왕은 제11대 비류왕의 차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고이왕과 마찬가지로 방계왕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천단독제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고이왕은 온조왕통의 전통적인 연합세력인 해씨(解氏) 대신에 진씨(眞氏) 집단과 연대하여 왕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통치기반을 구축했으며 방계왕통의 엄폐 및 정당화를 위해 초고왕과의 왕계관계를 설정한 바 있는데, 동일한 양상이 근초고왕에게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온조왕통인 비류왕에 의한 왕통교체에 따라 국정에서 소외되었던 진씨 집단이 재부상한 동시에 아예 왕비족으로 고착된 시기가 바로 근초고왕대⁵²⁾이었을 뿐 아

50) “十三年，秋九月，漢與獮人來侵，王出禦，爲敵兵所害，薨。”，<責稽王>，『三國史記』卷第二十四，「百濟本紀」第二。

51) 이기동(1981)，「百濟王室交代論에 대하여」，『백제연구』12，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나라, 아예 초고왕에 대한 왕계관계 설정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고자 하는 목적을 왕호(王號)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인물이 근초고왕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근초고왕이 왜 고이왕과 더불어 제천단독제를 지낸 유일한 한성백제왕이 되는 지의 이유가 해명될 수 있게 된다.

건국조인 온조왕을 포함하여 동명제와 제천제를 모두 지낸 5명의 왕들은 온조왕통의 수립자이거나 혹은 방계왕통을 온조왕통으로 교체한 적장계승자(嫡長繼承者)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최초의 동명제천겸병제(東明祭天兼併祭) 주재자인 온조왕은 소서노의 모계(母系)를 중심으로 하면 장자인 비류(沸流) 다음의 차자이지만 동모이부(同母異父)의 부계(父系)를 기준으로 하면 적장자⁵³⁾다. 온조왕이 한성백제 온조왕통의 설립자로서 동명제천겸병제를 제향했다면, 그의 장자 다루왕은 온조왕통의 적장자 계승원칙의 구축자 자격으로 동명제천겸병제를 지낼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백제 건국초기에 미처 공고화 되지 못한 온조왕통 적장자의 왕계 정당성을 동명제천겸병제를 통해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제11대 비류왕은 제8대 고이왕대부터 시작되어 제9대 책계왕, 제10대 분서왕까지 3대를 거쳐 지속되던 방계왕통을 다시 온조왕통으로 되돌린 일종의 중시조(中始祖) 자격으로 동명제천겸병제를 제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류왕이 온조왕에 이어 차자로서 동명제천겸병제를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온조왕통의 중시조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결과인 동시에 온조왕계 왕권을 재확인 받고자 하는 목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2) “拜眞淨爲朝廷佐平，淨王后親戚.”, <近肖古王>,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53) 소서노를 공통 모계로 하여 동명-우태-비류와 동명-주몽-온조의 두 줄본부여 집단이 남하하여 백제 초기의 건국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김성한(2015), 『『三國史記』百濟本紀의 濫祚傳承과 沸流傳承』,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제17대 아신왕은 제13대 근초고왕 때부터 이어져온 왕비족 진씨 연합 방계 적장자 왕통을 회복시킨 자격으로 동명제천겸전제를 지낼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15대 침류왕의 적장자였던 아신왕은 침류왕의 아우로 제16대왕으로 등극한 진사왕(辰斯王)이 재위 8년만에 사냥터 행궁에서 사망하자 등극함으로써 침류왕대까지 3대가 넘게 이어온 방계 적장자 왕통을 재개시켰다. 제18대 전지왕은 아신왕의 적장자로 굳이 동명제천겸전제를 필요가 없었지만 아신왕의 막내동생에게 뺏길 뻔한 방계 적장자 왕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동명제천겸전제 제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지왕의 등극이 해씨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7대 사반왕대까지 지속되었다가 제11대 비류왕이 잠시 회복시켰던 부여씨·해씨 연합정권을 재개⁵⁴⁾시킨 한성백제왕으로서 동명제천겸전제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엄연히 다른 신성성 체계 속에서 제향되었던 <동명제>와 <제천제>와 동일시하고 있는 해석상의 오류 못지않게, <동명제>를 총21명의 한성백제왕들을 제향 하는 <백제고분제>와 동일시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 방식도 문제다. <동명제>든 <제천제>든 한성백제 시대에 역대 한성백제왕들이 주관한 국가제 의는 총21명의 한성백제왕들이 한성백제 왕실의 종족시조인 동명왕과 한성백제 강역의 산천신에게 바치는 제향의 형태로 되어 있다. 고전서사원형인 <한성백제신화>에서 확인되는 <동명제>, <제천제>는 역대 한성백제왕들이 주재자가 되는 국가제 의였지, 역대 한성백제왕들을 제향하는 국가제 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역대 한성백제왕들에게 제향을 올리는 스토리체험스테이지를 개설하고 싶다면, <동명제>, <제천제>의 재매개화 스토리체험스테이지와 동격으로서가 아니라 <동명제>, <제천제>에 이어지는 새로운

54) 이용호(2009), 「百濟 전支王代 解氏勢力的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한국사연구』 147, 한국사학연구회.

스토리체험스태이지로서 <백제고분제>를 신설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2. <한성백제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의 구조적인 완결성 문제

현행의 <한성백제문화제>는 표면적으로는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 <한성백제망국신화>의 삼단계로 구조화 되어 있는 <한성백제신화>를 고전서사원형의 유형적인 체계대로 스토리두잉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성백제문화제>에서 확인되는 <한성백제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의 구조적인 오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전서사원형인 <한성백제신화>에 서사적으로 상관되는 <한성백제신화> 스토리체험구조의 순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고전서사원형인 <한성백제신화>에 서사적으로 상관되는 <한성백제신화> 스토리체험구조의 결락 문제이다.

먼저, 첫 번째의 스토리체험구조의 순서 문제이다. 현행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건국신화> 스토리체험존에 귀속되어야 할 개별적인 스토리체험스태이지들의 대부분이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으로 분산되어 있다. <한성백제건국신화> 스토리체험스태이지로서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건국신화> 스토리체험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동명제>가 유일하다. <한성백제건국신화> 스토리체험존을 구성해야 할 <온조왕의 남하행렬>과 <온조왕 즉위식>은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을 구성하고 있다. <온조왕 남하행렬>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제5일째 프로그램인 <한성백제역사문화거리행렬>의 서두를 장식하는 스토리체험테마로 배치되어 있고, <온조왕 즉위식>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제2일째부터 마지막 날 폐막식 직전까지 반복되는 <한성백제왕을 만나다> 앞부분의 스토리체험테마로 배정되어 있다.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체험구조로 본다면 온조왕은 전야제를 제외한 축제 기간 내내 남하와 건국, 즉위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물론 <한성백제왕 갈라퍼레이드> 스토리체험스테이지를 구성하는 고이왕의 <고이왕완성행렬>과 근초고왕의 <근초고왕 정복원정행군·마상무예>, <문화유산행렬>이나 <한성백제왕을 만나다> 스토리체험스테이지를 구성하는 고이왕의 <6좌평 임명식>과 근초고왕의 <근초고왕 승전 퍼레이드>, 개로왕의 <개로왕 역사극(도미부인)> 역시 <온조왕의 남하행렬>, <온조왕 즉위식>처럼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제2일차부터 마지막까지 반복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전야제를 제외한 <한성백제문화제> 내내 고이왕, 근초고왕과 개로왕이 각각 한성백제 체제 완성 및 최강국력 구축과 망국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로왕의 망국을 제외하고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축제 기간 내내 한성백제 역대왕들과의 인터액션(interaction)을 통해 한성백제의 지속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스토리두잉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다만,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에서 축제 제2일째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에 속한 <한성백제왕을 만나다> 스토리체험스테이지로 스토리두잉 되고 있는 개로왕의 망국 스토리체험테마는 문제가 다르다. 한성백제의 지속기가 아니라 종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이왕의 한성백제 체제 완성기이나 근초고왕의 한성백제 대외전성기 구축기처럼 축제 기간 내내 되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 구조와는 달리, 개로왕의 망국 스토리체험테마는 기존의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이 아니라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성백제망국신화> 스토리체험존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로왕 망국 스토리체험테마의 재매치와 동시에 기존 <한성백제문화제>의 폐막식 일정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한성백제문화제>의 폐막식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잠실동, 방이동을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공간으로 하여 개막식과 함께 현재화 되었던 <한성백제신화>의 신화적 환상 공간의 막이 닫힌다는 폐회 공지에 해당한다. 당연히 <한성백제신화>의 신화적 공간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제2일차부터 제4일차 스토리체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잠실동, 방이동을 신화적 공간으로 하여 현재화 되던 <한성백제신화>의 종결부에 그 이전의 전개부 스토리체험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개로왕 역사극(도미부인)>을 포함한 <한성백제망국신화> 스토리체험존과 폐막식 세트는 애초에 <한성백제 왕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 등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과 상호 다른 축제 일정에 배치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조왕의 개국 스토리테마 역시 개막식과 세트를 이룬 상태에서 개막일, 폐막일의 양일간을 제외하고는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내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잠실동, 방이동을 신화적 공간으로 하여 현재적으로 재매개화 스토리두잉되어야 하는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의 <한성백제 왕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 등과 상호 다른 축제 일정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전야제 프로그램인 <동명제>를 제외하고는 축제의 제2일차부터 마지막날까지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존의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과 혼재되어 있는 <온조왕 즉위식>, <온조왕 남하행렬>을 각각 <한성백제 왕을 만나다>와 <한성백제역사문화거리행렬>로부터 분리하여 개막식, <혼불채화식>과 병치시킨 뒤에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제1일차인 전야제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온조왕 즉위식>, <온조왕 남하행렬>, <동명제>, <개막식>, <혼불채화식>을 <한성백제문화제> 제1일차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로 배치시킴으로써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한성백제왕권신화> 스

토리체험존으로 스토리두잉 구조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온조왕의 개국 스토리테마와 관련된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한테 묶어서 <한성백제문화제> 제1일차에 배치해야 관광객들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잠실동, 방이동을 현재적 신화공간으로 하여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되어 있는 <한성백제신화>의 환상 속으로 입장하게 할 수 있는 출구(entrance)를 열어줄 수 있다. 이때, 주의 깊게 스토리두잉 되어야 할 것은 <한성백제건국신화> 스토리체험존을 구성하게 될 온조왕 건국 스토리체험 관련 스테이지들의 연결 순서가 된다.

다음으로 스토리체험구조의 결락 문제이다.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에는 <한성백제망국신화>의 스토리체험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한성백제문화제>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일상을 벗어난 환상과 난장의 재미를 만끽해야 하는 축제의 특성상 <한성백제망국신화>가 축제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스토리체험존으로 재매개화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개국과 축성, 법제·문화 입국(立國)과 대외정복, 외교 교류와 문화전파 등 찬란했던 한성백제의 건국·전성기를 재매개화 하는 편이 축제 스토리텔링의 특수성에 보다 부합한다고 본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판단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성백제망국신화>는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와 더불어 서울을 스토리체험공간으로 하는 <한성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를 스토리체험공간으로 하는 <백제문화제>로부터 차별화시키는 핵심적인 서사요소 중의 하나다. 세부적으로 <한성백제망국신화>는 <웅진·부여신화>의 <웅진·부여망국신화>에 대응되는 <한성백제신화>의 서사적인 주요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와 <웅진·부여백제문화제>가 계기적 연작성 속에서 기획되지 않았지만 양자가 공통적인 고전서사원형으로 하고 있는 <백제신화>로 인해 서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의 고전서사원형이 되는 <한성백제신화>가 <한성백제망국신화>로 마무리 되

어야 비로소 <백제문화제>의 고전서사원형이 되는 <웅진·부여백제신화>가 <웅진백제건국신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한성백제망국신화>가 <한성백제문화제> 대단원의 스토리체험존으로 재매개화 스토리텔링 되어야 비로소 <한성백제문화제>가 <웅진·부여백제문화제>와 차별화 된 독자성을 가지고 완결되는 동시에 <웅진·부여백제문화제>가 상대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성백제신화>의 서사적인 종결부가 부재한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 구조는 대단원의 서사적 결락을 <한성백제망국신화>의 재매개화 스토리두잉을 통해 메꿀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⁵⁾

4.3. <한성백제생활문화담> 재매개화 스토리두잉의 정체성 문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회가 거행된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를 고전서사원형으로 한 각각 총 2개의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존과 총4개의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가 전자의 하위층위가 되는데, 후자의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스

55) 여기서 망국이라는 단어가 흔히 비늘이성과 등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한성백제망국신화>의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기획이 시도조차 불가능하다는 인식적 장애가 전제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식적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리 지적해둔다. 후속연구인 <한성백제문화제> 리모델링 스토리두잉 기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지만, 불변서사인 한성백제 망국의 스토리에 전형적인 축제 피날레의 부활·변영·화합·희망 메시지를 가변서사로 투입함으로써 <한성백제부활신화>로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한성백제망국신화>의 <한성백제부활신화>로의 변형을 통해 <한성백제신화>를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석촌동·송파동 일원의 스토리체험공간 속에 현재화 한 성공적인 축제의 대단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리모델링 스토리두잉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기다려 주기 바란다.

페이지들 사이사이에는 한성백제왕이 아니라 한성백제민을 스토리체험 캐릭터(story experience character)로 한 스토리체험부스(story experience booth)들이 <한성백제 왕을 만나다>,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근초고왕 어가행렬>, <한성백제역사문화거리행렬> 등의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스태이들 사이사이에 병치되어 있다. 이들 한성백제민을 스토리체험캐릭터로 한 스토리체험부스들은 <한성백제신화>의 저류에서 서브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한성백제 생활문화담>을 고전서사원형으로 한 것으로,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스태이들 사이를 채워넣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성백제신화>의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콘텐츠를 서사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구실을 한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 거행된 제17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료1] <백제 등불거리>, <한성백제 체험마을>(장터, 마을, 주막, 병영 등), <백제 각저>, <한성백제문화제 연계 테마전시>(백제유적 출토 중국 도자), <한성백제 성곽돌기>(소원등 들고 몽촌토성 돌기), <한성백제 학술대회>(백제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매사냥), <전통 및 세계 먹거리>, <몽촌해자 수변음악회>,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처용무, 판소리, 솟대쟁이패), <한성백제 착한콘서트>,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교방축원무, 줄타기), <제26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 <제14회 한성백제 어울마당>,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택견, 아리랑, 교방장구춤, 농악, 탈춤), <송파산대놀이>, <평화의 광장 야외 콘서트>,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탈춤), <올림픽공원 행사장 순회>, <활쏘기>(병영체험)

이들 <한성백제문화제> 스토리체험부스들의 서사주체는 한성백제민이기 때문에 비록 한성백제왕을 서사주체로 하는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과 같은 축제 일정 속에 배치되어 있더라도 서사층위가 동일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한성백제신화>의 서사주체가 한성백제왕이라는 점에서 한성백제민을 서사주체로 한 <한성백제 생활문화 이야기>는 한성백제왕을 서사주체로 한 <한성백제신화>의 서브서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성백제민을 관광객의 스토리 체험캐릭터로 한 <한성백제 생활문화담>의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부스들은 한성백제왕을 메인 스토리체험캐릭터로 한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스토리체험스테이지들 사이에 출몰하면서 독립적인 서브서사를 구성하는 일종의 NPC (non-player character) 서사를 형성하게 된다. <한성백제문화제> 관광객들은 온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개로왕에 자신을 투사하여 이들 역대 한성백제왕들을 PC (player character)로 한 롤플레이팅(rolr playing)을 함으로써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의 메인 스토리를 써나가는 도중에 한성백제민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다양한 한성백제민을 npc로 한 <한성백제 생활문화담>을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의 서브서사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건국신화>,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스테이지들 사이에 출몰하는 NPC 스토리 체험부스들이 <한성백제 생활문화담>을 고전서사원형으로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에 있다. 즉, <한성백제문화제>의 많은 NPC 스토리 체험부스들이 한성백제문화의 특수성이 아니라 한국전통문화의 보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료1]의 <한성백제 생활문화담> 스토리 체험부스들을 각각 한성백제문화의 특수서사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부스와 한국전통문화의 보편서사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부스로 양분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자료2] ① <공성전>, <백제 등불거리>, <한성백제 체험마을>(장터, 마을, 주막, 병영 등), <백제 각저>, <한성백제문화제 연계 테마 전시>(백제유적 출토 중국 도자), <한성백제 성곽돌기>(소원등 들고 몽촌토성 돌기), <한성백제 학술대회>(백제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매사냥),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택견), <한성백제 별 헤는 밤>, <한성백제 매사냥 체험>, <한성백제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한성백제의상체험>, <한성백제병영체험>(활쏘기, 말타기), <수막새 만들기>, <백제문양 탁본 체험>, <한성백제 매듭 만들기>, <칠지도 검무 체험>, <백제 입체탑 만들기>, <칠지도 만들기>, <도미나루 소원의 배>, <풍납토성 우물짓기>, <백제 활·석궁 만들기>

② <전통 및 세계 먹거리>, <몽촌해자 수변음악회>,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처용무, 판소리, 솟대쟁이패), <한성백제 착한콘서트>,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교방축원무, 줄타기), <제26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 <제14회 한성백제 어울마당>,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아리랑, 교방장구춤, 농악, 탈춤), <송파산대놀이>, <평화의 광장 야외 콘서트>,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탈춤), <올림픽공원 행사장 순회>

[자료2] ①은 한성백제 생활문화와 관련된 특수서사를 고전서사원형으로 하여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된 스토리체험부스이고, [자료2] ②는 한국전통 생활문화와 관련된 보편서사를 고전서사원형으로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된 스토리체험부스이다. <한성백제문화제> 관광객이 [자료2] ①을 수행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방이동, 풍납동에 현재적으로 공간화 되어 있는 한성백제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성백제왕권신화>의 서브서사가 되는 <한성백제 생활문화담>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부스의 특수성을 명확히 구현하고 있다.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매사냥), <한성백제 매사냥 체험>과 <한성백제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는 한성백제 생활문화의 특수성이 의심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것에 부합한다.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매사냥), <한성백제 매사냥 체험>,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택견)은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파된 것이지만 매사냥 기술, 택견을 발전시켜서 일본으로 전수한 것은 한성백제기의 근초고왕대⁵⁶⁾이었다는 점에서 한성백제 생활문화의 특수성을 구현한 스토리두잉 체험부스가 된다고 할 수 있고, <한성백제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는 단순히 일반적인 테마가 아니라 한성백제 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사전공고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역시 한성백제 생활문화의 특수성과 관련된 스토리두잉 체험부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료2] ②는 한성백제 생활문화의 특수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료2] ②로 분류되어 있는 스토리체험부스들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민속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의 판소리, 솟대쟁이패, 줄타기, 탈춤, 송파산대놀이, 남사당놀이, 탈춤은 조선조 유랑연예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던 민속공연이고, 교방축원무, 교방장구춤은 조선시대 무속 금지령 때문에 교방(敎坊)으로 들어간 무당의 기예가 기존 여기(女妓)의 그것이 합쳐져서 탄생한 전문공연이며, 아리랑, 강강술래는 마을공동체의 번영과 화합을 위해 농사절기에 맞추어 이루어지던 조선조 세시풍속놀이이다. 심지어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처용무)는 백제가 아니라 신라에 기원을 두고 고려조부터 조선시대까지 발전한 궁중정재(宮中呈才)이다. <몽촌해자 수변음악회>, <한성백제 착한콘서트>는 제목만 한성백제의 특수성과 관련시켰을 뿐 고전서사원형과 스토리두잉의 실체는 한성백제 생활문화의 특수성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제26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 <제14회 한성백제 어울마당>, <평화의 광장 야외 콘서트>는 아예 제목에서조차도 한성백제의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현대 대중문화공연이다. <전통 및 세계 먹거리>는 한국

56) 노중국(2010), 「백제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백제학보』 1, 백제학회.

문화의 보편성을 넘어 세계문화의 보편적 세계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올림픽공원 행사장 순회>는 한성백제 생활문화의 특수성을 현대의 서울특별시 풍납동, 석촌동, 방이동에 걸쳐있는 올림픽공원을 배경으로 현재적 공간화 해 놓았으나 해당의 현재화 된 한성백제 공간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스토리두잉 될 스토리 자체의 특수성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4. 나오는 말

본 연구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웅진·사비백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동명왕 제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성백제에만 한정되는 온조왕 제의로부터 축제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의 연쇄적인 체험존들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두잉 또한 현행의 백제왕비선발대회, 백제왕행군식, 백제마을체험, 백제먹거리체험 등 공주와 부여의 <부여공주백제문화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한성·웅진·사비백제 보편의 백제문화를 재매개화 한 것에서 탈피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서울의 특수한 지리적 경계를 배경으로 한 한성백제의 신화적 공간성을 <한성백제문화제>의 스토리두잉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의 새로운 스토리두잉 결과물은 현행의 <부여공주백제문화제>의 그것과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에 나타난 <한성백제신화>의 공간적 구현양상과 스토리두잉 시스템을 <한성백제건국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존과 <한성백제왕권신화> 재매개화 스토리두잉 체험존으로 크게 양분하여 분석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객 개발 및 확충을 위해 현행 <한성백제문화제>의 <한성백제문화제> 재매개

화 리모델링 스토리두잉 입안점을 제시했다. <한성백제신화> 고전서사원형의 신화적 원형성과 역사적 사실성의 연계성 문제, 고전서사원형이 되는 <한성백제신화>를 <한성백제문화제>화 하는 스토리두잉 구조상의 완결성 문제, <한성백제생활문화담> 재매개화 스토리두잉의 정체성 문제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여 <한성백제문화제> 리모델링 스토리두잉을 위한 입안점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한성백제건국신화>의 관객 확충을 위해 기존 스토리두잉 시스템을 리모델링 할 기획 디자인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한성백제건국신화>의 특수한 신화적 콘텍스트와 상상력을 한성백제의 지리적 경계인 서울 도시 공간을 중심 센터로 하여 스토리두잉을 리모델링 하는 디자인이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후속 연구 진행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참고문헌

【논저】

-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 권도경(2019), 「서울 <한성백제신화>의 VR·AR·MR 테마파크 스토리두잉 (Storydoing) 방법론과 기획 디자인 전략」,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12 (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원.
- 권도경(2017), 「민속연행원형(演行原型)의 개념규정과 관광문화재매개화콘텐츠로의 스토리두잉 메카니즘」, 『비교민속학』 64, 비교민속학회.
- 권도경(2017), 「안양 지역설화 서사원형의 스토리두잉과 관광문화콘텐츠로의 재매개화」, 2017년도 동아시아고대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논문집.
- 권도경(2015), 「민속의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두잉 모형론 제시와 실천국문학의 고전연행원형으로서 민속이 지니는 차별적 가치 규정」, 비교민속학회 2015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논문집, 국립민속박물관.
- 권도경(2011), 「서울 공간의 신화적 상상력과 ‘한성백제문화축제’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안」, 한국어문학회 2011년도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성한(2015), 「『三國史記』百濟本紀의 溫祚傳承과 沸流傳承」,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 노중국(2010), 「백제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백제학보』 1, 백제학회.
- 이기동(1981), 「百濟 王室交代論에 대하여」, 『백제연구』 1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용호(2009), 「百濟 分支王代 解氏勢力의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한국사연구』 147, 한국사학연구회.
- 이혁진·최화열(2009), 「한성백제문화제의 관광 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지리지리학』 19 (1), 한국사지리지리학회.
- 조관휴(2014), 「백제 한성기의 왕계 변화와 대방군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4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원고 접수일: 2019년 10월 6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1월 8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8일

ABSTRACT

Analysis on the Reparametrization Storydoing System
of Hanseong Baekje Myth for the Academic Planning
Design of the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Remodeling

Kwon, Dokyung*

This paper is an analysis on the reparametrization storydoing system of the <Hanseong Baekje Myth> for the academic planning design of the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remodeling. This study follows two directions.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reparametrization storydoing system of the <Hanseong Baekje Myth> in the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from two approaches: 1) examining the reparametrization storydoing zone of the <Hanseong Baekje Foundation Myth>; 2) by examining the reparametrization storydoing zone of the <Hanseong Baekje Royal Authority Myth>.

Secondly, this study considers the academical points of the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remodeling for the development of new tourist interest. Three points are illuminated: 1) the mythical prototypicality and historical reality of the classical narrative prototype and original text of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Woosuk University

<Hanseong Baekje Myth>; 2) the structural completion that facilitates the reparametrization of the <Hanseong Baekje Myth> to the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3) identification of the reparametrization story-doing system of the <Hanseong Baekje Myth>.

This study will lead to the next concrete remodeling planning of the preexisting storydoing system of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for the development of new tourist interest.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at future study.